

파바로티 생전 파트너 게오르규 광주문예회관서 '감동의 무대'



유진 콘



고성현



라메 라하



안젤라 게오르규

루치아노 파바로티 서거 10주기 추모콘서트 월드투어 광주 공연

'루치아노 파바로티 서거 10주년 추모콘서트 월드투어' 공연이 오는 15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하이C의 제왕'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음역에서 멀리 뻗어나가는 맑고 깨끗한 음색이 최대의 장점이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더불어 20세기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클래식 음악가로 평가받았다.

이번 월드투어는 올해 이탈리아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이 파바로티의 기일인 9월 6일 이탈리아 베로나 원형극장에서 첫 공연을 하면서 시작했다. 스키테너의 멤버였던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를 비롯하여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등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12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17·18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이자 파바로티의 단골 파트너였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와 이탈리아 베로

라메 라하·유진 콘·고성현 출연 15일...광주시립교향악단 협연

나 원형 극장 공연의 지휘를 맡은 지휘자 유진 콘, 코소보 출신의 세계 오페라의 신성으로 떠오른 테너 라메 라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고성현이 무대에 오르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한다.

안젤라 게오르규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1990년 부쿠레슈티음악원을 졸업했다. 넓은 음역대와 부드러운 음색, 완벽한 연기력과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그녀는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라 트라비아'를 통해 이름을 알린 후 '가장 뛰어난 '미미', '가장 뛰어난 줄리엣' 등의 찬사를 받는 정상급 프리 마돈나다.

지휘자 유진콘은 마리아 칼라스, 프랑코 코렐리, 루치아노 파바로티, 레나타 테발디의 피아노 반주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에리히 라인스도르프 등

에게 지휘 수업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지휘계에 입문하였다.

북미와 유럽지역을 위주로 교향악 지휘에 수년간 전념한 후, 유진 콘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시작으로 비엔나, 함부르크, 베를린, 파리 등 전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파바로티가 생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들로 꾸민다. 파바로티의 상징적 레퍼토리인 '카루소', 파바로티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게오르규와 라메 라하와의 이중창 오페라 '라보렐' 중 '그대의 찬 손', 오페라 '라 트라비아' 중 '파리를 떠나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아디나와 네모리노의 이중창',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이번 한국 공연에는 파바로티의 미망인이자 현재 파바로티 재단의 대표인 니콜레타 파바로티 여사가 딸과 함께 내한할 예정이다.

V석 13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회원 30% 할인 : 2인 한정). 티켓링크(1588-7890)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국조각가협회 회원전 17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대한민국 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대전, 광주, 전남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170여명이 함께하는 메타드급 기획전이다.

(사)전국조각가협회(이사장 정춘표) 제36회 정기회원전이 오는 17일까지 광주비엔날레 1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에서 열린다.

전국조각가협회는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방 대학 출신 작가들의 주도로 1985년 조직한 '제3 조각가협회'에서 출발했다. 1986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전시회를 진행해 왔다.

'조각꽃 무대에 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학연, 지연을 떠나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70대 원로 작가부터 20대 청년 작가까지 전 세대가 참여,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화강암, 브론즈, 스테인레스 스틸, 목재, 우레탄, 대리석, 휴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통적인 인물상과 더불어 실험적인 소재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눈에 띈다. 기린의 머리를 대신한 한 남자의 모습, 소나무 껍질과 영상을 결합시킨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정춘표 작 '축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강주호, 이기원, 박상호, 정운태, 최규철, 김숙빈 등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62-942-59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예술이 숨 쉬는...'

화순 다산미술관

30일까지 기획초대전



▶박주하 작 '동심'

화순 다산미술관이 기획 초대전 '남도, 예술이 숨 쉬는 타전'을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

서양화가 박주하·이석원, 서예가 담헌 전명옥과 남조 전진현, 문인화가 명당 한상운씨를 초청한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대표작과 근작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박주하 작가는 민화적 요소를 차용, 유년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표현한 작품 '동심' 등을 통해 남도의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새로운 매체 실험을 시도하는 이석원 작가는 목직 한 고요함을 전하는 작품 '섬'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다.

글씨에 회화적 요소를 도입해 문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을 드러내는 전명옥 작가는 진한 먹과 함께 화려한 붉은 색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강렬한 느낌을 전하며 전진현 작가는 서예의 정도를 따르듯 묵향 가득 고매한 글씨를 선보인다.

수묵을 기조로 여백의미를 강조한 공간 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여온 명당 한상운 개성 넘치는 먹담체와 사유가 담긴 그림을 통해 시, 서, 화로 완성되는 남도 문인화의 전통을 보여준다. 문의 061-371-34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새 강좌 개설...내달 3일까지 철학·영화 등 강연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11월 들어 새 강좌를 개설한다. 내달 3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9기 강좌는 인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을 만난다.

정규강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오후 7시 30분) 나누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인문사회용

합시각으로 명혜영 교수가 '해체에서 다시 정립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화요일은 김청우 박사가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진행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위상복 교수가 각각 '물의 철학,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 강독, '맘스와 자본'을 강의한다. 문의 010-4624-1201.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진희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박진희(순천대 겸임교수·사진)가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이번 독주회에는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No.31, Op.110'과 프랑크 작곡가 메시앙의 '아기예술을 바라보는 20개의 눈길 중 No.2, No.12'를 들려주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Op.90 No.3'과 '방랑자 환상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A b 장조'의 시작 부분은 op. 109의 마지막 악장에 나오는 영혼을 울리는 송가

같은 주제와 선율이 연결된다.

박 씨는 고등학교시절 독일로 유학해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에센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라인란트루어 페스티벌, 야나페스티벌, 모차르트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했고,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현재 광주 국제교류센터,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더플레이즈, 순천악회 회원이며, 순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